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5.(수) 14:00 배포 2026. 11. 25.(수)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 정부·공공기관·대학이 함께 나선다

- 기후부·환경공단·환경보전원·5개 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 대학 교육부터 전문 실습, 현장 실무까지 연계하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운영 5개 대학*,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 총 8개 기관이 11월 25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컨벤션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NAMs)**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아주대

** 동물대체시험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 AI 활용 독성 예측법, 세포 기반 시험 등 전통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새로운 시험·평가방법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적으로 과학적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실험을 줄이는 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대체시험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역량을 겸비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특성화대학원'과 '산업현장 실무교육(인턴십)'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물대체시험 교육훈련센터('27년 개소, 한국환경공단)의 전문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대학원생의 동물대체시험 분야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교육훈련센터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동물대체시험 관련 전문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특성화대학원 및 실무교육 참여기관을 비롯해 교육훈련센터 사이의 실습교육 연계를 지원한다. 5개 특성화대학원은 동물대체시험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대학원생의 실습 참여를 지원한다.

협약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 전문기관 실습교육 및 산업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고, 동물대체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동물대체시험법의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뿐 아니라 시험 기술 활용과 같은 실무역량을 함께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공공기관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연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전문.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770)
		담당자	사무관	허은정 (044-201-67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업무협약식 개요**

□ 추진배경

○ 국제적인 **동물대체시험 확대** 및 **규제 활용 증가**에 대응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기반 마련 필요

○ '27년 개소하는 **동물대체시험 교육센터**(공단)와 **특성화대학원·일경험 사업**(보전원)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론교육-전문훈련-현장실무**로 이어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업무협약 개요

○ (협약명)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 (일시/장소) '26.11.25(수), 13:50~14:40/서울파트너스하우스컨벤션홀(지하 1층)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38(한남동 726-78)

○ (협약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특성화대학원 운영 5개 대학(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아주대)

○ (주요 협력내용)

- (기후부)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 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지원
- (대학) 동물대체시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전문교육·현장실습 참여 지원
- (공단) 공동훈련센터('27년 개소) 내 수준별 동물대체시험 전문교육 운영
- (보전원) 특성화대학원 및 인턴십 사업과 공동훈련센터 연계 지원

□ 세부 일정

시간		주요일정	비고
13:50~14:00	10′	· **사전 차담회** 및 협약장소 이동	간담회장2(협약대표)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 **인사말씀**	기후부
14:15~14:20	5′	· 교육훈련센터 소개	환경공단
14:20~14:25	5′	· 특성화대학원 교육연계 방향 발표	환경보전원
14:25~14:30	5′	· 일경험 교육 운영사례 발표	
14:30~14:35	5′	· **협약체결(서명)**	협약 당사자 전원
14:35~14:40	5′	· 기념촬영 및 폐회	협약 당사자 전원

붙임2 **업무협약서 전문**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 및 고려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대학교·아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동물대체시험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각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후부, 공단, 보전원 및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동물대체시험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각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기관 간 필요한 협력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협약 참여자는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범위) 각 기관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하나. 기후부는 본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 정책 관련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에 협조한다.

하나. 공단은 교육훈련센터(가칭)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및 시설·장비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하나. 보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특성화대학원·일경험 참여기관과 교육훈련센터(가칭) 간 교육·훈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대학은 동물대체시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소양이 갖춰진 인재를 추천하고, 관련 학사 연계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협조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간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8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2026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 한 승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차 광 명

KECI 한국환경보전원

원 장 신 진 수

(代)

고려대학교

부총장 윤 성 택

(代)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총장 김 용 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 강 동 호

(代)

서 울 대 학 교

부총장 김 주 한

(代)

아주대학교

부총장 손 정 훈